

유럽산 독성물질 검출 유리병 이유식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4.20(월) 언론에서 오스트리아 등 유럽지역 슈퍼마켓에서 판매된 유기농 유리병 이유식에서 독성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보도에 따라, 당근 및 감자를 원료로 하여 유리병에 담긴 해당 이유식은 국내에 정식 수입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오스트리아 정부가 리콜 명령한 해당 제품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직구로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식약처는 ‘네이버쇼핑’, ‘옥션이베이’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인터넷 구매대행영업자에게 해당 이유식 제품들의 판매 및 구매대행 금지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소비자가 해외사이트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하였다.

참고로 이번 조치는 오스트리아 보건식품안전청이 외부 요인에 따른 유해 물질 유입이나 특정한 일부 제품만의 변조를 추정하고 있지만, 예방 차원에서 유리병 이유식 전 제품을 자발적 회수함에 따른 것이다.

해당제품 확인 방법

- √ 수입식품정보마루 초기화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 가능
 - * ①수입식품정보마루(www.impfood.mfds.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수입식품정보마루 > 안전정보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 안전정보
- √ 식품안전나라 초기화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확인 가능
 - *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 ②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



올바로 QR코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을 면밀히 살펴 국민 안심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철희 (043-719-2201)
		담당자	사무관	유행일 (043-719-2210)
담당 부서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	책임자	과 장	조성훈 (043-719-6251)
		담당자	사무관	김지영 (043-719-6256)
협조 부서	사이버조사팀	책임자	과 장	박영민 (043-719-1901)
		담당자	사무관	주민석 (043-719-1910)

